철강업계, 美 50% 관세 '비상'… 인도 등 신흥국 개척 사활

트럼프, 외국산 철강제품 관세 인상
국내 철강사, 대응책 마련 '구슬땀'

포스코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추진
현대제철 인도에 신규 SSC 건설
동국제강그룹 인도 코일센터 가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부 전경. /포스코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에 대응해 인도 등 신흥국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산 저가물량 공세에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국시장 마저 막힐 위기에 놓인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미국시장 비중은 약 13%에 달한다. 관세가 100% 인상될 경우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향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 다각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인도 시장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는 세계 2위 주강 생산국임에도 올해 철강 소비 성장률이 8~9%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이 100kg을 넘어섰을 때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같은 수준에 도달한 인도의 철강 수요 역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인도 JSW스틸과 합작을 통해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가 인도 진출을 본격화할 경우 고로의 총 가치는 약 40억달러로 추정되며 양사가 절반씩 투자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포스코 지분 가치는 약 2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연산 규모와 설립 지역이 철광석 매장지인 오디샤주 케온자르로 계획돼 있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 중심의 철강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포스코는 인도 고로에 열연 및 냉연 제품 중심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제품은 각각 연 25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도 인도 푸네 지역에 신규 스틸서비스센터(SSC) 건설에 나섰다. 올해 3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현대차 인도공장에 고급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동국제강그룹 또한 냉연 부문을 담당하는 동국씨엠 산하에 인도 코일센터를 가동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현지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을 안정적인 수요처로 선점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약 8조 5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이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내 물가상승을 우려해 현지 생산 제품 가격까지 인상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실제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을 당시 미국 내 열연강판 가격이 한 달 만에 24% 가까이 급등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간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中企·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공제기금 기반 신용대출 확대
"전국 협동조합 연계 지속 강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연계를 통해 공제기금 기반 신용대출을 확대하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3일 중소기업공제기금과 전국 협동조합 간 연계를 강화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활용해 담보 없이 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을 제공하는 신용대출 제도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금융권은 대출 연체 우려로 신용대출을 꺼리는 추세다.

반면, 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도 평균 6% 수준의 금리로 납입부금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 한도는 부동산 담보를 활용해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대출 금리의 1~2%를 추가로 지원해 실질적인 금리 부담도 낮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884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확대했다.

5월 말 기준,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충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0여 개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관련 단체들이 공제 대행 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사에 대한 가입 안내와 대출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공제기금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창진원, '이노웨이브' 참여기업 모집

27일까지 접수… 10개 컨소시엄 선정

창업진흥원이 딥테크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수요기업 간 공동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이노웨이브(Inno-Wave)'를 본격 운영한다.

창업진흥원은 이달 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노웨이브(Inno-Wave)'는 초격차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력과 수요기업의 실증 환경, 사업화 인프라를 결합해 개방형 혁신을 실현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작년부터 운영해 온 초격차 프로젝트 통합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요기업 모집은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교통, 에너지, 의료, 환경 등 대규모 실증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수요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이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10개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협업에 필요한 자금(최대 5000만원)과 매칭, 실증 인프라, 공동 개발 및 후속 사업화 등 협업 과제 수행 후 올해 하반기 협업 결과와 사업화 계획 등을 발표하는 '이노웨이브 리그'를 통해 주요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종필 원장(**사진**)은 "이노웨이브는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수요기업의 시장 경험이 결합해 혁신이 탄생하는 '협업의 장'으로, 특히 올해 공공분야까지 수요처를 넓히고 실질적 성과 창출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한 만큼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여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스타트업이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

시몬스가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위해 '웨딩 프로모션'을 펼친다.

3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이번 웨딩 프로모션을 위해 ▲매트리스 최대 20% 할인 ▲신제품 프레임 및 베딩류 10% 할인 ▲특정 프레임·퍼니처·룸세트 30%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

가격 할인과 함께 푸짐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룸 스프레이 ▲700만 원 이상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루밀라 침구세트, 룸 스프레이 ▲900만 원 이상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개와 루밀라 침구세트, 사계절 사용 가능한 올시즌 구스 이불, 룸 스프레이를 선물한다.

/김승호 기자

시멘트협회, 9일~12일 '셈텍 코리아' 개최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등 현안 논의

전세계 시멘트산업에 종사하는 핵심 인재들이 공동 현안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등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술 분야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영국에 있는 글로벌 시멘트산업 전문기관인 셈넷(Cemnet)이 주최하고 국내 시멘트업계를 대표해 시멘트협회가 후원하는 '2025 Cemtech Asia'(2025 셈텍 아시아)를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시멘트산업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2025 셈텍 아시아'는 시멘트협회 전근식 회장을 비롯해 주요 시멘트업계 대표가 모두 참여하며 정부, 국회에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이번 '2025 셈텍 아시아'에서는 미래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시멘트협회 기술개발실 김의철 이사의 '한국시멘트산업과 탄소중립'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삼표그룹 장 미셸 전무는 한국시멘트산업의 저탄소 추진 과정을 설명한다.

또 중국, 인도 등 이머징마켓의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로드맵, 연소효율 향상을 위한 수소기반 기술, AI공정 활용 사례, CCUS 기술 변화, 온실가스 저감에 최적화한 환경설비 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개국 10주년 '미리감사' 이벤트

9일부터 10% 할인쿠폰 발급

공영홈쇼핑이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미리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지난 2015년 7월 14일 개국 후 올해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위해 기획했다.

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9일부터 30일까지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리감사' 10%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계정(ID)당 매주 2장씩 지급하며 3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쿠폰 1장당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한다.

같은 기간 공영홈쇼핑 간판 프로그램의 방송 상품을 구매하면 10% 적립금도 지급한다.

6월 한 달간 '웰컴 쿠폰·적립금' 이벤트도 펼쳐진다. 첫 구매 고객이나 최근 3개월간 미구매 고객이라면 모바일 앱 15% 쿠폰과 온라인 몰 10%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을 사용하면 추후 2000원 적립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해 문을 연 공영홈쇼핑이 소비자의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10주년 생일이 있는 7월에는 더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